

이사회 개최



회의 광경

우리 협회의 주요당면 과제들을 협의하기 위한 이사회가 김규태 회장 주재로 지난 1월 10일(제1회)에 개최되어 협회 업무보고에 이은 회의록 승인과 부의안건 순으로 진행되었다. 주요 의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

- '95제건축위원회 위원선임의 건
- 김택성, 이종관, 임인혁이사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임함.
- 건축사 노임단가 기준변경 승인의 건
- 다음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함.

(단위 : 원)

구분	건축사	건축사보(고급)	건축사보(중급)	건축사보(초급)	보조원
총천	94,800	74,400	55,800	39,000	25,700
개정	107,652	78,449	63,339	43,855	40,800

- 건축사시험 특별회계 운영을 위한 임의적 적립금 일시차입 승인의 건
- 건축사시험 특별회계 운영을 위해 7월까지 부족한 금액을 임의적립금에서 4천8백5십1만8천6백원을 일시 차입하여 사용하고 응시수수료 수입에서 당해년도에 반환하기로 원안대로 승인함.
- 불우이웃돕기성금 모금 및 전달기관 선정 승인의 건
- 협회 예산으로 하되, 방법·금액 및 전달기관 선정 등은 회장에게 위임함.
- 고문번호사 및 자문세무사 위촉에 대한 협의
- 조용락 고문번호사 및 정판영 자문세무사를 1년간 재위촉하기로 협의함.
- 건축사시험 관리에 대한 협의
- 협회에서 앞으로의 건축사시험을 주관하여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95년도 시행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부회장 및 김택성 시험 위원장에게 위임함.

*제39회(94년)

- 예산 목간전용 사용 승인의 건
- 일반회계 '회의비항' 중 '총회비목'에서 2백4십만1천6백80원을 감액하여 '이사회비목'으로 9십9만9백80원과 위원회의비로 1백4십1만7백원을 증액하고, '사업비항' 중 '홍보선전비목'에서 1백3십9만5천9백90원을 감액하여 '행사비목'으로 1백3십9만5천9백90원을 증액하는 목간전용 사용을 승인함.

- 특별회계 '관리유지비항' 중 '수선수수료목'에서 7백만원과 공과금 및 잡비에서 2백9십7만4천90원을 감액하여 '수도광열비목'으로 9백9십7만4천90원을 증액하는 목간전용 사용을 승인함.

- 신입임원 업무분담에 대한 협의
- 임원임기 만료에 따라 공석중인 중앙윤리위원회에 송인창 이사, 건축설계, 감리위원회에 임인혁이사, 건축사시험위원회에 김택성이사, 연금연구위원회에 김동준이사, 30주년 기념행사위원회에 이종관 이사를 위원장으로 명년 임시총회시까지 위촉키로 하고, 기존위원회 및 위원임기를 명년 임시총회시까지 연장키로 협의함.
- 94년도 건축사연수 보충교육 실시에 대한 협의
- 건축사연수 보충교육계획을 계획안대로 협의하고, 교육일자를 12월 22일로 결정함.

*제40회(94년)

- 협회 개혁추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
- 협회 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장은 김태웅 이사로 하고 위원선임은 회장에게 위임함.
- 추대회원 추대 추가 승인의 건
- 정창규 회원을 추대회원으로 추가 추대하기로 승인함.
- 충북건축사회 정원(직급)조정(안) 승인의 건
- 충북 건축사회 정원(직급)조정(안), 3급갑→2급을, 6급갑→5급을, 7급을→6급을 각 1명으로 승인함.
- 95년도 직원봉급기준표 조정(안) 승인의 건
- 현행대비 16%~23%로 인상조정된 95년도 직업 봉급기준표(안)을 원안대로 승인함.

서울건축사회, 94년도 귀속수입 금액신고 요령에 관한 세무교육 실시



교육 광경

서울특별시 건축사회(회장 이의구)는 지난 1월 23일 오후 2시 건축사회관 대강당에서 94년도 귀속수입금액신고 요령에 관한 세무교육을 실시하였다.

회원의 세무업무에 도움을 주기 위해 국세청의 협조를 받아 마련된 이번 교육에는 약 300여명의 경리업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세청 소득세과 담당관의 강의를 있었다.

서울건축사회,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세미나 개최

서울특별시건축사회(회장 이의구)는 지난 1월 26일 오후 2시 건축사회관 대강당에서 250여명의 회원 및 컴퓨터 사용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해설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지난해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던 복제본 컴퓨터 CAD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인한 회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회원 설계업무의 효율향상을 위해 마련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맹광태 회원(종합건축사사무소 원양·한라·성민)의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해설과 협회의 지적소유권에 관한 장기발전계획 추진 상황 소개 그리고 강기세 회원(법건축)의 복제물사용자 단속 실태 설명, 복제물 사용자, 지적자의 처리에 대한 현재진행 사항 설명 등이 있었다.

부산건축사회, 제4회 화우회 전시회 개최



기념촬영 광경

부산건축사회(회장 박성길)은 지난 1월 23일 오후 6시에 부산건축사회관 전시실에서 부산에 있는 미술계 인사 및 회원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회 부산건축사 화우회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부산건축사화우회는 지난 89년에 발기하여 현재까지 제4회 회원전을 개최하고 있는데 회원수는 22명이다. 한편 이번 전시회는 지난 1월 27일까지 부산건축사회관 전시실에서 개최되었다.

'95 견실시공 다짐대회 개최

우리 협회와 7개 건설관련단체 대표들은 지난 1월 17일 오후 2시부터 건설회관 2층 대강당에서 '95견실시공 다짐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부실방지 대책보고에서 우리 협회는 선진기술보급 및 정보체제의 구축으로 세계화, 개방화에 대비하여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건축전문화를 추진하고 충실한 설계·감리가 가능하도록 회원교육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건축학회, 신년교례회 및 입주식 거행

대한건축학회(회장 이명호)는 지난 1월 7일(토) 오후12시 새로 건립된 사당동 건축회관 지하1층 강당에서 건축계 인사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교례회 및 입주식을 거행하였다. 건축학회는 그동안 회관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 회관건립을 추진하여 창립 50주년이 되는 금년에 입주하게 된 것이다. 이번에 준공된 건축회관은 지하2층 지상6층 건물로 회장실은 5층 사무국은 4층에 위치하고 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감리제도 발전 정책토론회 개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지난 1월 26일 서울 서초동 교원단체 총연합회관 대강당에서 『건설공사 감리제도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고 시설물에 대한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한국부동산감리협회의 『감리제도의 합리화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와 이마누엘 보송 프랑스 국가 중요 도로 감독관의 『프랑스 공공공사의 감리제도』에 대한 주제발표가 각각 있었다.

「서울 건축학교」 설립

『건축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의 회원들이 중심이 되어 단순한 건축물에도 생명과 예술혼이 살아 숨쉬도록 보여주고 가르치는 실험적인 건축학교를 설립할 예정이다. 이번 서울건축학교는 지금까지 건축이 고도성장에 따른 양적팽창만 강조돼 왔을뿐 건축이 갖는 창의적 의도는 전혀 퇴색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해서 개인의 다양한 능력을 개발해 사회문화적 현상에 대한 폭넓은 실험의 장을 마련하자는 것으로 올해는 정규과정 시행에 앞서 일련의 실험과정으로 4차례의 워크숍을 계획하고 있다. 95년 2월 24일부터 3월 10일까지 열릴 예정인 이번 첫 워크숍에는 『이시대 이땅의 공동체』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6개 학급 25명의 학생이 모집된다. 진행방식은 1개 학급에 5인내 6개 학급을 구성하고, 튜터별 주제에 대한 해석 및 과제부여, 단위 학급당 튜터1인, 크리티크1인, 낮강좌와 저녁강좌에 이론 및 관련분야 실기 병행, 전체중간 평가 및 최종평가, 전시 및 출판, 건축기행(1박2일)으로 진행된다.

서울시, 건축행정절차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

서울시는 서울지역에서 건축물의 용도변경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각 구별로 다른 건축조례를 통일하는 골자로 된 건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건설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1백 36종으로 세분화돼 있는 건물용도를 다른 용도로 변경할 경우, 일일이 변경허가를 받도록 돼 있던 것을 일정 용도 지역내에서 허용되는 용도로 변경할 경우 허가없이 변경토록 할 예정이며, 임의용도변경의 허용범위는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2백~3백㎡ 이내로 제한할 방침이다. 또한 구 건축조례의 경우 구별로 다소 차이가 나 혼선이 빚어짐에 따라 시 건축조례로 흡수, 통일하기로 했으며, 준공검사때 신축건물과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거리오차를 현재 5cm에서 10~30cm까지 완화해주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밖에 공무원이 현장 확인후 사용검사 필증을 교부해오던 것을 감리자의 감리완료 보고서만으로 사용승인을 내주고 건축물의 설계·시공 등과 관련한 분쟁을 처리하기 위해 시와 구청에 건축분쟁 조정위원회도 설치하기로 했다.

대한건축학회, 「철근콘크리트 구조계산 기준 및 해설」 발간

대한건축학회(회장 이명호)는 극한 한도설계법에 의한 『철근콘크리트 구조계산 기준 및 해설』을 발간하였다. 『철근콘크리트 구조계산 기준 및 해설』은 건축물 설계시 콘크리트 및 철근 콘크리트 구조 부재의 설계와 시공에 관한 최소 필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난 1988년 건설부의 요청에 따라 처음 발간하였고, 이어 1992년에는 『건축구조기준』으로 발간된 바 있으며, 이번에 2차로 개정된 것이다.

알려드립니다.

최근 서울을 비롯한 일부지역에서 미국의 AUTO CAD 소프트웨어 불법복제품 일제단속이 이루어져 복제품을 사용한 일부 건축사사무소대표가 구속되었다는, 벌금 1억원을 물었다는 하는 헛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 소문의 진상은 Auto Desk사의 고소에 의해 몇몇 사무소가 검찰의 단속대상이 되어 조사중이나, 검찰에서도 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해 우호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벌금 2천만원 이하로 협의되고 있는 실정이오니 회원 여러분께서는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